



제주4·3 제76주년 서울 추념식 개최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했다.

4·3 학살의 공범자들을 소개한 오프닝 영상 ‘꽃을 짓밟은 사람들’로 시작한 이날 추념식은 김종민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의 추념사에 이어 1·3세대 유족 증언과 다채로운 연주와 노래를 엮은 기념공연이 진행됐다.

유족을 포함해 참석자 200여 명의 ‘동백꽃 헌화’에 이어 4·3과 친구들 연대광장 및 종단 의례도 이어졌다. 청계광장을 동백꽃으로 수놓은 4·3과 친구들 연대광장은 3세대 청년 유족, 4·3 문화회 등 4·3 관련 부스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역사영화회, 국가폭력피해법국민연대 등 연대 단체, 전국시사문화협회, ‘4·3과 함께하는 손글씨’, 4·3평화인권교육 강사모임의 동백꽃 만들기 등 체험 부스 등이 다채롭게 진행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추념식에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도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오늘 서울 추념식이 4·3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가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하고 잔인한 역사”라며 “하지만 당시 집이 불타고 가족이 죽었던 상황에서 어린 소년, 소녀들이 살아남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복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DC 서울 벚꽃축제서 팝업스토어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핏츠런파크 서울 벚꽃 축제에서 열린 JDC 최초 수도권 팝업스토어 ‘JDC 벚꽃 면세점, Blossom Day’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달 6일과 7일 총 4일간 진행된 ‘JDC 벚꽃 면세점, Blossom Day’는 벚꽃축제를 찾은 고객에게 제주를 테마로 한 체험형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JDC 면세점을 알리는 한편, 제주도와 협업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제주도 모양 유채꽃 포토존으로 시선을 끌면서 추억을 남기는 사진 자판기, 한 달 후 제주에서 보내는 느린 엽서 등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곽진규 JDC 면세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 관람객이 제주와 JDC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JDC 면세점이 제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어디에서나 여행의 설렘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JDC 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투자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식목 행사 개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돌 트밍에도 청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울타리 돌 틈 사이에 꽃을 식재하는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장과 직원들은 ‘세대 공감, 생각 공감’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어선사고 인명구조 유공자 표창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어선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적극 나서는 등 신속한 대처로 해상 안전과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민간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성산포어선 성실호, 3월 서귀포어선 2008만선호 전복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서 구조 및 실종자 발견 등에 적극 협조해 도민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제3태양호 박제운 선주, 뉴백마린호 조승일 선장, 제77덕성호 이상철 선주, 영재호 여수건 선장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박승훈 경사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박제운 선주는 성실호 사고 당시 어선원 1명을 구조하고, 조승일 선장은 실종자 1명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상철 선주는 2008만선호 사고 당시 어선원 4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1명을 발견했으며, 여수건 선장은 어선원 4명을 구조했다. 박승훈 경사는 몸을 아끼지 않고 수색에 나서 실종자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오영훈 지사는 “해난사고 특성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적극적인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업활동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민간어선 및 해경 등 유관기관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주유나이티드 유연수 훈련지원금

제주유나이티드는 K리그 사회공헌재단 ‘K리그어시스트(이사장 박영진)’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구창용 제주 대표이사, 김현희 제주 단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 유연수 선수 훈련 지원금 후원식을 열었다.

유연수는 지난 2020년 제주에 입단하며 골키퍼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지만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하반기 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제주는 이날 후원식에서 훈련 지원금뿐만 아니라



유연수의 이름과 그의 상징인 31번이 마킹 된 2024시즌 제주의 유니폼을 전달했다.

유연수는 “새로운 목표를 패럴림픽 출전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 '사용자의 주위상황'과 '사용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선심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사
청각학사
청각학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